

- 관세철폐로 우리나라가 가장 크게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품목은 돼지고기임. 일본의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는 수입 제한효과가 높은 차액관세 형태임.

5. 농업부문 FTA추진방향

① 교역원활화 추진

- 민감한 농산물의 시장개방을 예외로 하면서도 역내 시장통합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 강구.
-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는 기준을 조화시키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함.
- 문제를 다루어 나갈 적절한 기구를 역내에 설치함으로써 시장 통합의 기능성과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② 식품안전시스템 구축

- 국민건강 위협요인, 위해병해충의 유입 및 유통질서 교란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

- 연개 식품안전 시스템의 적절한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국가 간 육류 및 생축의 이동이 가능토록 생산이력시스템에 대한 표준 및 정보교환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SPS, Codex 기준에 적합한 농산물 및 식품생산 및 교역을 위한 협력이 요구됨.

③ 보완관계의 발전

-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경제 및 농업발전 정도에서 차이가 있음.
- 보존자원 집약도, 품목별 특화에 있어서 보완관계를 발전시켜나아가야 함.

④ 농업분야의 협력강화

- 기술협력, 인적교류, 유전자원교류, 저장, 가공, 유통시설에 대한 투자 등 다양한 분야의 농업협력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일본에서 바라본 한·중·일 FTA 영향분석

오쿠다 사토루(奥田 聡)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

FTA 확충에 힘쓰는 북동아시아

전세계가 무역자유화를 위해 최적의 도입을 목적으로 한 WTO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때, 각국은 그 대신에 자유무역네트워크를 전제로 FTA(자유무역협정)를 확충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는 한중일 3국에서는 무역입국을 표방하는 한국이 한·미 FTA를 타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지만, 경제 규모가 큰 중·일 양국의 움직임이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2010년에 들어 중·일 양국의 FTA 확충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장기간 어려운 경제를 배경으로 개혁에 대한 기운이 나타나고 환태평양전략적연대협정(TPP) 참가를 위한 준비가 2010년 후반부터 진행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중국·아세안 FTA를 기반으로 아세안 6개국과 2010년부터 원칙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동년 6월에는 대만과 FTA협정인 ECFA를 체결하였고, 일부 품목은 관세감세가 2011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11년 7월에 한·EU FTA가 발효되어 2012년 3월 15일에는 타결 후 약5년을 거쳐 한·미 FTA가 발효되었다.

난항을 겪고 있는 북동아시아 역내 FTA와 최근의 변화

북동아시아 3국은 FTA의 적극추진을 합의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역내무역의존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내의 FTA, 특히 양국 간의 FTA는 지지부진하다.

한·중, 중·일 FTA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자국의 농업이나 경공업 등 취약한 부문에 대해 염려하고 있으며, 대미동맹에 대한 배려에서 차원 등으로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일 EPA는 한국 측에서 대일 적자폭을 염려하고 있어 교섭과정에서 일본의 농산품개방 폭이 너무 적어 2004년 이후 교섭이 중단되었다.

그렇지만, 일본의 TPP참가와 한·미 FTA의 발효 등 최근의 상황과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변화는 북동아시아의 양국 간 FTA정체라는 구도에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일본의 TPP참가와 한·미 FTA발효에 의해 양국은 중국에 접근하기 쉬워졌다. 그리고 북한에 의한 국지적 군사도발이나 권력계승 등으로 한반도정세가 유동화되는 속에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것과 관련하여 한·중 FTA의 정식교섭이 추진되고 있다.

협상 개시한 한·중·일 FTA

접근이 어려운 양국 간 FTA를 대신하여, 한편에서 진행을 시작한 것이 한·중·일 FTA이다. 양국 간 FTA는 역내국제정체의 변화로 인하여 정체될 가능성이 있지만, 한·중·일 FTA는 그러한 영향이 약한 메리트가 있다.

지금까지 한·중·일 FTA는 많은 준비기간을 거쳤다.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민간공동연구를 진행하였고, 2010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산학관공동연구를 진행하였다.

한·중·일 FTA의 의의는 경제규모가 큰 동북아시아 3국을 커버하는 것만이 아니고, 보다 광역의 무역자유화, 즉 아세안 + 3, 아세안 + 6,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권(FTAAP) 등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서의 역할도 있다고 할 수 있다.

한·중·일 FTA의 영향추계

① 주요가설

한·중·일 3국간 무역을 자유화하는 경우 각국이 이해득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최근 무역통계를 기초로 추계하고자 한다.

현재 한·중·일 FTA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다. 때문에 한·중·일 3국의 관세양허를 한·미 FTA에 의한 한국시장의 1년간의 인하율을 예로 들기로 한다. 이에 따르면 발효 후 3년 이내의 관세철폐품목은 전체의 94%이다. 가격변화에 대한 반응정도를 나타내는 대차탄력성은 GTAP 2005년 판의 수치를 각국공통으로 준용하고, 수입통계는 각국이 2010년 품목별수치(HS8~10)를 준비하였다. 한국은 수출품에 대한 관세환불을 감안하여 그 대상이 되는 수입액에 대해서는 추계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추계한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한·중·일 FTA의 영향분석

(단위 : 100만불)

수출국	수입시장			수출순증
	한국시장	중국시장	일본시장	
한국	-13,209	31,095	1,046	18,932
중국	11,124	-48,336	11,940	-25,272
일본	8,384	61,281	-10,363	59,302
(제3국)	-6,299	-44,040	-2,623	-52,962

② 최대의 메리트를 얻는 일본

가장 많은 메리트를 얻는 일본에서 수출순증액은 593억달러를 넘는다. 이것이 실현되면 일본의 GDP가 약 1.1% 상승하는 계산이 된다. 그 대부분을 중국시장에서 얻는 것이며, 중국에 대한 수출증가는 613억달러에 이른다. 일본시장의 영향은 104억달러 정도이지만, 그중에서 대부분이 중국에서 의류 등의 수입이 점유할 것이다.

③ 수입순증이 되는 중국

한편, 중국은 한·일 양국에 수출증가를 실현할 것이며, 중국시장에서 수입의 대폭적인 증가를 보충하기 어려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중국의 수입순증은 GDP 약 0.4%에 상당하는 253억달러에 이른다. 대일 수출증가의 대부분은 의류 등 섬유제품이 점유하지만, 대한 수출증가는 섬유 외에 화학, 철강, 전기 등도 많을 것이고 최근 한·중 간 비교우위변화가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다.

④ 한국은 먼저 수출순증을 확보

한국은 189억달러의 수출순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으로 한국의 GDP는 약 1.9% 상승하고, 국내경제에 대한 인팩트의 관점에서는 한국이 얻는 메리트는 적지 않을 것이다.

다만, 메리트의 대부분은 중국시장에서 얻어지는 것(311억달러)이고, 대일 수출순증은 10억달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대중 수출증가도 일본의 약 절반정도이고 한국이 대중 수출과의 비교는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적다.

⑤ 제3국은 대중 수출이 크게 낮아진다.

구미나 대만 등 제3국은 530억달러의 수출순감이 될 것이다. 그 대부분은 중국시장에서 발생(440억달러)하고, 다음으로 한국시장(63억달러)가 발생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추계는 현재의 상황을 추정한 것이므로 이해를 하기 바란다. 대차탄력성은 시장, 수입처별로 보면 실제로는 비탄력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많다. 한국의 대일수입은 그러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FTA이용율은 평균 약 85%정도로 가정(중국시장)하였지만, 최근 발효된 한·EU FTA의 이용율 62%(대 EU수출)는 상당히 높은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㉞